

북한개발소식

2024 JUL

07

통권 225호

이달의 주제

해외 북한 노동자 사태로 보는
북한 주민 의식 변화와 선교

탈북민 수기

손이슬 자매 (제 4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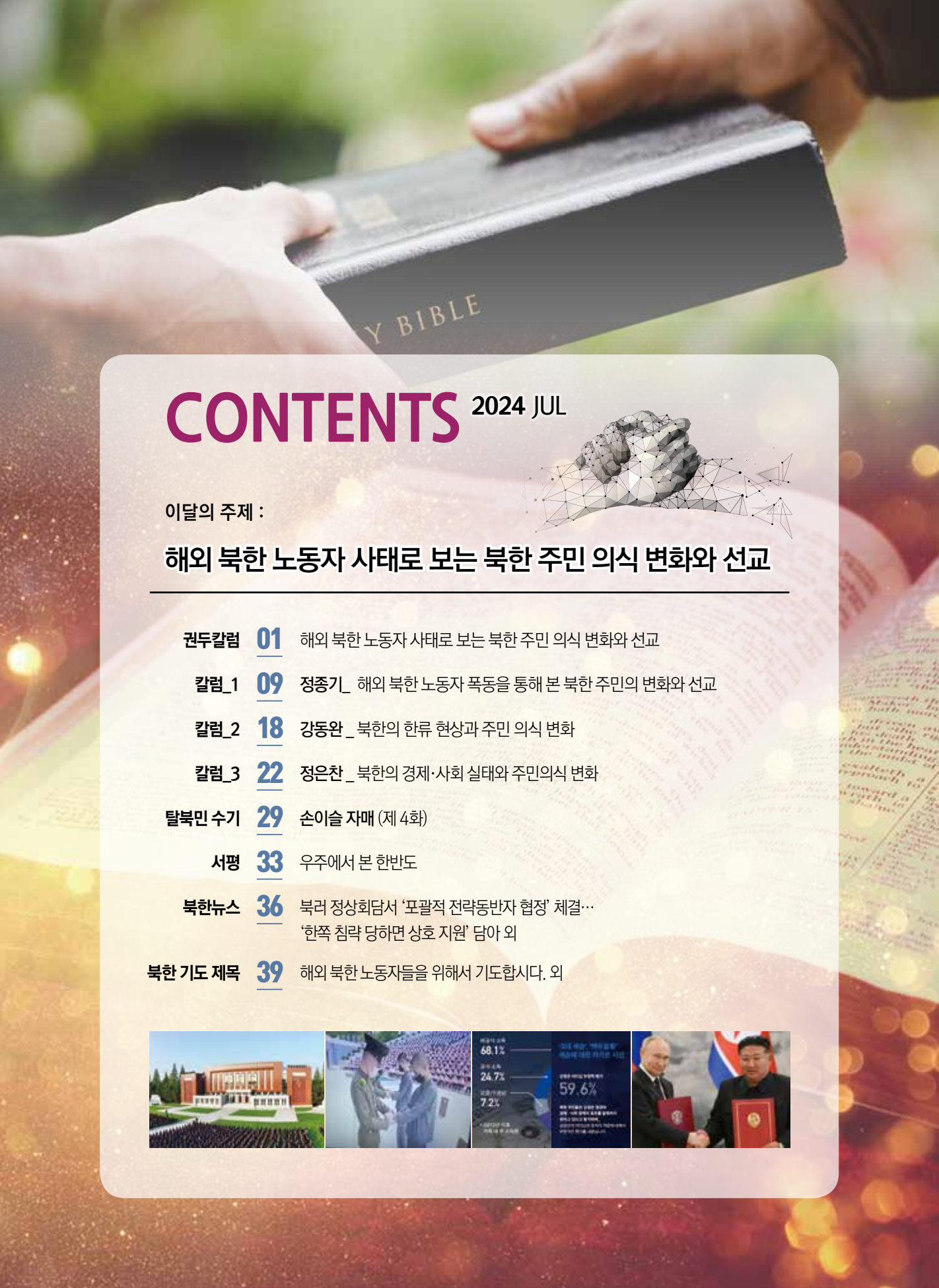
북한뉴스

북러 정상회담서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 체결…
‘한쪽 침략 당하면 상호 지원’ 담아 외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CONTENTS 2024 JUL



이달의 주제 :

해외 북한 노동자 사태로 보는 북한 주민 의식 변화와 선교

- 권두칼럼 01 해외 북한 노동자 사태로 보는 북한 주민 의식 변화와 선교
- 칼럼_1 09 정종기_ 해외 북한 노동자 폭동을 통해 본 북한 주민의 변화와 선교
- 칼럼_2 18 강동완_ 북한의 한류 현상과 주민 의식 변화
- 칼럼_3 22 정은찬_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와 주민의식 변화
- 탈북민 수기 29 손이슬 자매 (제 4화)
- 서평 33 우주에서 본 한반도
- 북한뉴스 36 북러 정상회담서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 체결... '한쪽 침략 당하면 상호 지원' 담아 외
- 북한 기도 제목 39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외



권두칼럼

해외 북한 노동자 사태로 보는 북한 주민 의식 변화와 선교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올해 초 외신 보도를 통해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이례적인 폭동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올 1월 중국 지린성의 한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연쇄 파업과 폭동을 벌여 북한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폭동이 벌어진 곳은 중국 지린성 연변 조선족자치구 화룡시에 있는 '연변광성자원유한공사'의 의류제조·수산물 가공 공장이었다. 해당 폭동은 작년에 북한으로 귀국한 동료 노동자들이 평양에서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북한 기업은 북한 노동자를 파견하고 중국 회사에서 1인당 월급으로 약 2500~2800위안(약 46만~52만원)을 받는다. 이 가운데 숙박·식대(월 800위안)와 북한의 무역회사 몫(월 1000위안)을 떼고, 절반에도 못미치는 700~1000위안(약 13만~18만원)만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2020년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북한과 중국간 국경이 폐쇄되자 귀국이 예정되어 있던 다수의 노동자들이 그대로 남게 되었는데, 북한 측이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귀국할 때 한꺼번에 주겠다"며 임금 지급을 미뤘던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북한 노동자들은 나중에 받을 줄 알았던 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¹

북한 노동자들의 폭동소식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 노동자들은 해외에서도 엄격한 통제 아래 조직 생활을 한다. 또한 해외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들은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시킨, 북한 사회에

1 "중 북한 노동자 2000명 지난해 폭동, 언론인이 전한 전말", 조선일보 홈페이지 (2024.02.18.),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japan/2024/02/18/M74AN2OVCRG2ZFZGWCWELTDH4HA/>>

서 충성심을 인정받고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폭동 사태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이 사건을 한 번의 우연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게 만든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발생한 북한 해외 노동자 사태를 들여다보고, 이와 관련된 북한 사회와 사람들의 의식 변화, 그리고 선교적 관점에서의 적용점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해외 북한 노동자 사태 들여다보기

이번 해외 북한 노동자 집단 파업 사태는 임금 체불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지만 노동자들은 왜 더욱 격렬하게 반발하였을까? 여기에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큰 영향을 미쳤다.

북한에서 해외 파견 노동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상당한 대가가 요구된다. 이러한 부담을 짊어지면서까지 파견에 나서는 이유는 당연히 가족의 경제적 안녕을 위해서이다. 배정된 공장에서 지급되는 월급에서 북한 당국이 절반 이상을 뜯어가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 동안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열악한 생활환경을 감내하며 최대한 임금을 모았다. 지역에 따라 관리자에게 뇌물을 바치고 회사 밖 일감을 찾는 ‘개인청부’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모은 외화는 절대적 액수로는 그리 크지 않더라도 북한 내에서의 가치가 상당하기에 많은 이들이 고되고 열악한 해외 노동자 파견에 지원해왔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이런 맥락에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되었다. 먼저 이동통제와 봉쇄 상황이 이어지면서 노동자들은 더욱 고립된 상황에 처했다. 그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임금을 코로나19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당시 현지 탐사 보도들을 보면 그 당시부터 노동자들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귀국할 때 임금을 모아서 한꺼번에 주겠다는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 그런 가운데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나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졌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여러 방역 물품의 수요가 급

증했고, 그러다보니 동북 3성의 관련 공장에서 근무했던 북한 노동자들은 강도 높은 무리한 노동에 시달렸다.³

코로나19 대유행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이들 노동자들은 하루 속히 밀린 임금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렸을 것이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렸던 그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오히려 받아야 할 임금마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몰렸고, 이것이 노동자들의 불만을 폭발시킨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해외 북한 노동자 폭동 사태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의 영향이 큰 만큼 일회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이번 사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간 해외노동자들의 일탈행위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탁민지(2024)는 해당 사태가 개인이 아닌 집단 차원에서의 반발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노동자들이 북한 당국에 직접 책임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탈행위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한다. 천 명 단위의 노동자가 참여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낸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억압된 북한 사회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방식이며, 또한 항상 국가에 충성해야 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배워온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권리가 국가로부터 침해당했다고 판단하고 당국에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이다.⁴

장마당 세대의 특징: 당과 수령에 대한 불신

이번 사태로 관찰된 북한 노동자들의 새로운 흐름이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1980~90년대에 출생한 북한의 ‘장마당 세대’의 특징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장마당세대’란 북한에서 1980~90년대에 태어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유년·청소년기를 겪은 세대이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참가한 노동자들 대부분이 이러한 장마당 세대에 속하는 연령의 노동자들이다. 이번 사태는 장마당 세대의 여러 특징 중에서도 특히 그들이 가진 당과 국가에 대한 인식이 기존 세대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 부각된다.

2 Shin Watanabe, “Stranded North Koreans in China keep earning for homeland”, Nikkei Asia (2020.10.22.), <<https://asia.nikkei.com/Spotlight/N-Korea-at-crossroads/Stranded-North-Koreans-in-China-keep-earning-for-homeland>>

3 최영진 (2021), “코로나시기 동북아접경지대에 북한노동자의 고용위협-체류와 송환”, 평화학연구 제 22권 4호 (2021), 43-46.

4 탁민지 (2024), “중국 지원성 북한 해외노동자 집단 파업 사태의 함의: 해외 파견 노예노동의 위기”,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4-17 (2024.02.20.), 3-5.

북한은 주민들에게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대가정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을 주입시키며 수령과 당을 각각 인민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모시고 따르도록 가르쳐왔다. 수령이 은덕을 베풀면 모든 사회구성원은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해왔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 사상적으로 결속하면 영생하는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 정치적 생명체’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입시켰다. 이러한 이념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 속에서 수령과 당에게는 반항하거나 책임을 묻는 따위의 ‘불경’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장마당 세대는 이러한 충성심이 크게 약화된 모습을 보인다. 김규리(2023)는 북한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암송할 만큼 ‘어머니 당’을 선전하는 시인 김철의 ‘어머니’와 ‘용서하시라’에 대한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언을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이전 세대의 북한 주민들은 ‘이 시를 읊으며 당에게 진정으로 충성하였고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였다’고 증언했다. 배고파 굶어죽으면서도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문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중간단위 간부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인식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반면 장마당 세대의 북한 주민들은 당을 어머니로 표현한 이시가 100% 맞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어머니 당이 주민들에게 배급이나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문제가 벌어지면 거짓말로 막으려는 것 같아서 어머니 당이 100%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응답도 있었다.⁵

이러한 차이를 일으킨 가장 큰 이유는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당과 수령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강동완 김범수(2023)는 장마당 세대의 집단 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장마당 세대는 당과 수령에 대해서 ‘먹는 문제를 당이 해결하지 못했다’, ‘심각한 경제난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외부정보 접촉을 통해 더욱 촉진되었다고 분석했다.⁶ 이러한 불신 속에서 청년들이 국가와 당, 수령에 대해 기성세대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정아 외(2023)의 북한 청년세대에 관한 연구⁷에 따르면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당과 국가에 무조건 헌신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복종하거나 때로는 형식적인 복종에 그쳤다. 김정은이 참석하는 ‘1호 행사’ 참여를 원하더라도 이것이 수

령에 대한 충성심과 영광스러움이 아닌, 대학 진학과 직장 배치에서 가질 수 있는 이점을 기대하는 식이라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새로운 세대가 보이는 당과 수령, 국가에 대한 충성과 헌신은 대부분 자신의 이해관계와 결합된 것임을 보여준다.

모든 것은 생존을 위해

당과 수령이 현실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러한 불신의 상황은 경제 문제를 가장 치열하게 마주하는 노동현장에서 더욱 극명해진다. 국가에서 배정한 직장에서 일하며 배급으로 생활하는데 익숙했던 사람들이 이제 전혀 다른 노동 환경에서 생존 투쟁에 나서게 되었기 때문이다. 김화순(2024)은 2010년 이후 공장을 떠나는 북한 노동자의 선택과 이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러한 북한 노동자들의 생존투쟁을 다루었다.⁸ 해당 연구에서 60년대생 노동자들은 갑작스럽게 감소한 배급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먹을 알’, 즉 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나 권력이 없고, 장사를 해서 생계를 도모할 적응력도 없었던 이들은 부족한 배급을 메꾸기 위해 소토지 농사나 약초채취 등 농사로 생계를 근근이 꾸려갔다. 반면 80년대생 노동자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한 노동’을 해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뚜렷했다. 이들은 8.3 노동자⁹가 되거나 밀수 등에 종사하는 등 이전 세대에 비해 더욱 다양한 삶의 양식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다른 모습을 보이는 상반된 부류의 노동자들이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국가가 자신과 가족들을 버린 기억을 공유했다. 60년대생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의 자녀 빨인 80년대생 노동자들도 아버지를 버린 국가를 불신하고 자신과 가족을 위한 생존에 대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과거 북한에서 노동은 벌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의 부름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같은 것이었다. 이제 북한에서 노동은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우리와 같이 상품을 구매하는 교환수단, 즉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이 ‘생존’하는 것이 북한의 노동

5 김규리 (2023), “북한의 ‘어머니 당’에 대한 세뇌 효과와 한계: 조선예술영화 ‘보증’에 삽입된 김일성 상(賞) 계관시인 김철의 시 〈어머니〉, 〈용서하시라〉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15집 1호, 2023). 219-248.

6 강동완, 김범수 (2023), “북한 ‘장마당 세대’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관한 인식과 신념체계의 변화”, 한국과 국제사회 제 7권 4호 (2023), 861-889.

7 조정아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들: 순응과 자립 사이, 국가와 시장을 횡단하기」, 서울: 통일연구원 (2023).

8 김화순 (2024),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 닫힌 세계 속 부유(浮遊)하는 북한 공장노동자들의 목소리”, 현대북한연구, 27권 1호(2024), 207-257.

9 8.3노동자: 노동이 「헌법」에 명시된 의무인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소속된 직장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출근을 면제받고 장마당에서 장사 등 부업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를 지칭하는 말. (출처: 국립통일교육원 북한 지식사전)

자들의 목표이다. 이제는 생존의 문제를 당과 수령이 책임져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이 마주한 새로운 노동 환경은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하다. 8.3 노동자가 되더라도 소속 기업소에 일정 금액을 상납해야 하는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게 되고, 충분한 벌이를 위해서는 국가에서 금지하였거나 생존의 위협을 무릅쓴 위험한 일에도 뛰어들어야 하는 불안하고 고단한 처지이다. 8.3노동자나 밀수 등의 비공식 교역은 우리가 북한 경제의 시장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등장하는 북한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북한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연구대상자들과 유사한 불안과 고단함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해당 연구는 공식/비공식의 경계선을 오가는 북한 노동자들을 ‘생존노동자’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 안정적이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존에 대한 의지 하나만으로 노동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¹⁰

해외로 파견을 나온 북한 노동자들도 ‘생존’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더 나은 기회를 찾아 그 길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런 그들이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그 절망감은 자신들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약속을 어긴 당국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기 충분해 보인다. 이번 사태가 천명 단위의 대규모로 발생한 것은 대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북한 밖에서 벌어진 특수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을 통해 향후 북한 주민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을 언급하기에는 선부르지만, 180도 바뀐 경제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들, 특히 장마당 세대 구성원들이 당과 수령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과 같이 앓음은 분명해보인다.

선교에의 시사점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는 선교에 있어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먼저 북한 주민들이 그 동안 신뢰해왔던 당과 수령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가지게 된 점은 분명 북한 선교에 있어서 선교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 동안 철저한 우상화 교육 속에서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지배해왔지만, 이제는 이념적인 세뇌가 약화되면서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는 마음의 틈으로 작용할 수 있


다. 반면 다른 한 편으로는 이들이 선택하는 삶의 양식이 바로 북한 당국이 오랜 기간 교육해왔던 ‘주체’, ‘자력갱생’으로 귀결된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북한 주민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하여 스스로 생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이는 “인간은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기본 원리와의 맞닿아있다. 이러한 ‘주체’의 사고방식이 유물론적 사상교육과 맞물려 ‘돈’에 집착하는 생활양식으로 이어지기 쉽다. 교회는 이들이 빠지기 쉬운 천민 자본주의의 함정을 극복하고, 복음을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돈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하며, 생존을 넘어 사명의 가치관으로, 돈벌이의 노동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특별히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비우호적 경제 상황과 그에 따른 생존의식에 주목해본다. 북한 사회가 시장화의 물결을 타고 변화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북한의 변화를 위한 촉매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장마당의 활성화가 남한과 북한 사회 간의 격차를 줄인다는 연구도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진행되는 시장화가 북한 주민 입장에서 꼭 기쁜 소식은 아닌 듯하다. 노동 환경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북한 주민들의 상황은 남한보다 훨씬 열악하다. 남한은 노동자들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노동자들을 위한 여러 사회안전망이 작동하고 있다. 고용 여건도 북한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반면 북한 노동자들은 기업소에 무조건 배치는 되지만 턱없이 적은 배급으로 인해 생존을 위한 부업이나 8.3 노동자가 되는 것이 강요된다. 시장에서의 활동도 안정과는 거리가 있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법을 어겨야만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으며,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일까지 노출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주민들이 ‘생존’에 집착하고 ‘자력갱생’의 사고를 보이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살아온 그 역경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어떻게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실천 방안들이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사역이나 행동을 제시하기보다는 대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많은 탈북민 성도들은 자신의 회심의 시작을 선교사들의 대가 없는 사랑에서부터였다고 고백한다. 당과 수령에게 배신당하고 더욱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몰리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대가 없는 섬김은 그들

¹⁰김희순(2024), 앞의 글, 248-252.

의 이해를 벗어난 차원의 것이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는 단순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도움을 제공하는 시혜적 관계가 아닌, 신앙 공동체를 통한 새로운 관계와 삶의 방식을 체험하며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인간관계보다 당과 수령의 은덕을 표현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들을 사랑한다고 했던 당과 수령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장마당 세대이다. 마치 강도 만난 것과 같은 억압과 고단함을 마주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웃이 되는 것, 그 대가 없는 사랑은 그들의 마음에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올 것이다.

해외 북한노동자 파업사태를 중심으로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 특히 장마당 세대의 변화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변화가 절대적이라거나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이번 사태는 변화하는 북한 사회와 사람들에 대해 포착할 수 있었던 가시적인 사건으로서 의미가 크다. 이번 해외 노동자 사태를 계기로 변화하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관심과 선교에의 고민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상황에 맞는 북한 선교의 방안과 실천이 구상되고 구체화될 수 있길 바란다. 북녘의 더 많은 이들이 부조리와 억압 가운데서 자유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한다. 

해외 북한 노동자 폭동을 통해 본 북한 주민의 변화와 선교

정 종 기 (고신총회통일선교원 원장)

I. 들어가면서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무척 노력한다. 올해 들어와 북한은 주체사상 교육을 더 강화하였고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어 사회 동요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김주애를 등장시켜 원가를 계속 주입시키고 있고, 미사일을 계속 쏘아 올려 인민들을 하나로 묶으려 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79년동안 겉으로는 변하지 않은 것 같으나 서서히 변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한다. 물론 한국에 와있는 북한의 고위층 중 한 분은 북한이 변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으나, 얼음 밑 시냇물이 흐르듯 북한은 뭔가 달라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변화가 반갑다. 북한의 작은 변화가 곧 북한 선교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할 북한선교는 이런 틈이 있는 곳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종의 틈새전략이다. 아주 작은 틈이라도 생

겼다면, 그것을 찾아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찾아 북한선교의 도구 혹은 길로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다음 몇 가지 북한사회와 체제에 벌어진 틈을 나열해 보고자 한다.

II.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몇 가지 사건

A. 조금씩 변해가는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

북한의 지도자는 주민들의 사회, 문화, 세계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그런지 당중앙간부학교에 걸린 삼대 수령의 초상화는 그간 보여준 수령의 행보에서 약간 벗어난 느낌이기도 하다. 초상화정치를 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가 다시 삼부자 초상화를 내어 걸었다는 것은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에 강한 반발심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여러 매체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 1월 탈북민 출신 연구원 최경희 대표가 이끄는 샌드



〈지난 5월 21일 준공식을 가진 평양 금수산지구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교내 혁명사적관 외벽에 김정은 위원장 초상화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와 나란히 걸린 모습이 포착됐다. (조선중앙통신)〉

연구소가 북한 내에서 한 교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을 창당했다가 적발됐다고 공개한 것은 국내 민주화 과정에서 재야 운동을 연상시켰다.¹ SAND연구소가 입수한 자료²에 따르면 지방의 한 군(郡)에서 교원으로 일하던 신 모 씨는 한국 방송과 녹화물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북한 체제에 반감을 가지고 반체제 정당까지 만들었다.”고 하였다.

이 사건은 체제 변화를 일으킬 만한 큰 사건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마르크스-레닌주의로 회귀하고 있고, 주체사상학습을 강화하고 있으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만들어 강력한

처벌을 위주로 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에 틈이 생기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B. 새로운 계층의 등장

북한은 계급사회가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곧이듣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 보이는 계층과 보이지 않는 계층이 존재하고 있음을 살아가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분상승을 노력해야 충성동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북한주민들은 안다. 고난의 행군이후 일부 북한 주민들에게 기회가 왔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자, 돈을 통해 새로운 신분을 획득한 것이다. 이들을 보통 돈주라고 한다. 돈주의 등장은 북한사회의 새로운 변화이다.

이런 신분의 변화는 북한사회에서 사상중심

에서 물질중심으로의 의식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돈이면 다 된다는 의식이다. 맘몬주의는 새로운 신의 영역이다. 즉 신앙도 사상도 수령도 다 잡아먹는다. 신앙, 사상, 수령 위에 돈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주민들은 수령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다면 이제는 돈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그렇다고 해서 돈주들이 모두 체제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여전히 북한체제는 이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번 돈맛을 본 북한주민들은 이제 쉽게 맘몬주의에서 주체주의로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돈주의 등장은 북한에 자본주의를 정착시키는 효과가 증대 될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자본주의 경험은 체제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변화는 북한 정권에게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C. 정보 유입의 변화

북한정부가 체제 유지를 위해 가장 힘쓰는 것은 외부 정보의 차단이다.

가. 손전화의 영향

미국 싱크탱크 스티븐 센터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650만~700만 명으로 추산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성인 인구의 50~80%가 스마트폰을 보유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 주민 대부분은 스마트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으며, 당국의 검열·통제가 가능한 광명망이라는 인트라넷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

그러나 스마트폰의 위력은 대단했다. 대북전

단을 핸드폰으로 찍어 확산시키거나, 북한 내부 상황을 말이 아닌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탈북한 경우⁴도 있다. 북한은 현재 지방에도 기지국을 구축하고 평양에는 와이파이 망도 구축했다.⁵ 북한주민들 감시망 피해 스마트폰으로 해외 인터넷 접속하고 있다고 한다. 혹 북한 정권이 핸드폰 사진과 동영상 삭제제를 법으로 제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해외 북한 노동자 폭동 사태의 원인 중에 핸드폰 사용금지가 폭동을 불러왔다고 할 정도이니 북한내지주민들에게도 일시적으로 핸드폰 사용을 금지시킨다면 북한내지주민들의 폭동도 예상할 수 있다.

나. 해외노동자들의 귀국을 통한 정보유입

해외노동자들을 통한 정보유입이 심심치 않다는 것을 북한정권도 알고 있는 것 같다. 동아일보는 복수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은 최근 “군 관련 기관의 비밀엄수가 되지 않는다”며 군사 관련 기관 간부들의 지능형손전화기(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⁶ 심지어 2013년부터 해외파견 노동자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진다.⁷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를 감시·통제하는 북한 간부와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삼성, LG 등 남한 스마트폰을 몰래 쓰면서 외부 정보를 접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⁸ 특히 러시

1 “中 외화벌이” 노동자 연쇄 소요사태… 北 체제 위기의 전조?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312514863>〉 2024.6.1.

2 “북한 교사가 “자유민주주의 새로운 당 건설”…자생적 반체제 활동 징후”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22436>〉 2024.6.2.

3 “인터넷도 안되는 북에선 스마트폰 어디다 쓰나” 연합뉴스, 2023.11.12.

4 “이 남자, 곧 죽는다, 북 탈북자가 찍은 참상 충격”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28406638861368>〉 2024.5.31.

5 “북 휴대폰 화선 700만 추정”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5086300504>〉 2022.11.15.

6 “김정은, 군 간부들에게 ‘지능형 손전전화기’ 사용 중단지시” 중앙일보, 2019.11.27.

7 “해외 북 간부들, 남 스마트폰 몰래사용”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97102>〉 2016.8.1.

8 “해외 북 간부들, 남 스마트폰 몰래 사용”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97102>〉 2016.8.1.

아로 나간 해외 노동자들은 평양 출신들이 많다. 그들이 계약이 끝나고 평양으로 들어오면 번 돈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만났던 외국사람 혹은 보고 들었던 한국에 관한 정보도 같이 가지고 들어온다. 이들의 소유된 정보는 간직하고 있어야 하겠지만 결국 입을 통해 전해지게 됨으로 알게 모르게 해외노동자들이 외부 정보의 통로가 되어졌다.

다. 남한 K-POP과 K-DRAMA의 유입

북한은 2020년 12월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데 이어 2021년 9월에는 ‘청년교양보장법’ 그리고 지난해 2월에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을 한 배경에는 실제로 북한 정권은 그동안 사회에 널리 퍼진 남한의 노래(K-POP)와 드라마(K-DRAMA), 문화, 종교, 자본주의적 생활방식 등의 확산에 무척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도 일부지역이나 잠시 잠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전역과 전 세대를 통해 퍼지고 있으니 그냥 놓아둘 수 없어 법으로 제정하고 실행⁹하고 있다고 본다. 남한 드라마 때문에 잡혀 실형과 사형을 당한 사건이 남한 뉴스를 통해 우리가 알 정도이니 얼마만큼 심각한 것인지 알 수 있다.

D. 북한의 ‘두 국가’ 선언 및 통일·민족 폐기

북한의 김정은이 통일의 무거운 짐을 벗어 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여전히 의문스럽다. 선대로부터 고집하던 적화통일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두 국가로 영구분단의 길을 걸어가려고 결단하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이것 역

시 북한의 변화인데, 이 변화로 한국교회가 보아야 할 북한선교의 틈새가 있다. 북한은 동족의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할지 모르지만 단군 이래로 내려온 한반도의 역사를 거스를 수는 없다. 같은 조선을 지나, 같은 일제 35년을 지났고, 그 역사 아래서 호흡하며 살아왔다. 한국교회는 북한이 아무리 같은 민족, 동족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한 동족이요 한 민족임을 더욱 더 강조하고 바울이 동족을 위해 자신을 버릴 각오하듯이 한국교회도 바울의 각오를 다짐하며 북한선교에 한 발 더 앞서 가야 할 것이다.

E.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사건 : 해외 북한 노동자 폭동 사태

북한사회 변화 중에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해외 북한노동자 폭동사태’이다. 해외 북한노동자 폭동사태는 뉴스가 되어 우리가 북한 사회의 변화를 단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폭동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한 건씩 일어났는데, 1월에는 북한 국방성 산하 업체가 노동자를 파견한 중국 지린성 허룽시 의류 제조 공장과 수산물 공장에서 임금체불 문제로 폭동이 일어났고¹⁰ 2월에는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의류공장에서 노동자 약 10명이 귀국을 요구하며 출근을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을 하였으며 3월에는 아프리카 콩고공화국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 수십명이 지난 달로 귀국 예정되었던 귀국이 연기되자 이에 반발하며 폭동을 일으킨¹¹ 사건이다.

이 사건의 배경은 단지 해외노동자들의 외화

벌이로 국가에 바쳐야할 충성자금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도 평소에는 노동자들 짬짬이 무엇인가를 해서 집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마련하였지만 그것마저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고, 또 팬데믹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를 맞추지 못하다가 약속된 날이 왔음에도 돌아가지 못하게 된 생존적 불만이 터진 것이다.

이런 폭동은 북한체제 특성상 한 사람이 주도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생각이 같은 여러 사람이 모의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인데, 과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세대가 누구인가? 산케이 신문은 지린성 폭동과 관련해 “북한 당국에 충격이었던 것은 ‘장마당 세대’¹²라고 하는 30세 전후가 폭동을 주도했다는 사실”이라며 “그들은 이전 세대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전했다. 앞서 말한 학교 교원인 신 모씨가 정당을 만들었다는 쇼킹한 사건의 배후에도 장마당세대가 있다고 한다.

북한사회 변화의 배경에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다. 새로운 세대를 장마당 세대라고 한다. 장마당 세대는 다른 세대와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첫째는 1980-90년대에 태어나 청소년 시절에 ‘고난의 행군’을 겪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굶주려 먹을 것을 찾아다니던 때라 학교 정규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 학교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북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사상학습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장마당 세대는 부모 세대와는 상당히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 둘째는 장마당이란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하다. 어린 시절 장마당

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은 노동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보다 돈벌이와 잘사는 한국 사회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³ 셋째는 이들은 배급제의 경험이 거의 없다. 즉 북한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한 세대인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장마당세대는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질 줄 안다.

그럼 장마당 세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10-20대는 어떠한가? 탈북한 교원출신은 “요즘 북한 10-20대는 김정은 말을 안 듣는다”¹⁴고 말한다. 이들은 이미 남한 문화에 너무 많이 학습되어 있어 외부 정보 통제에 외부정보를 볼 수 있는 우회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다.

장마당 세대와 10-20대가 북한의 한 축을 이루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정권은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경제를 잡기 위해 장성택을 숙청한 것처럼 어느 순간 한 번은 더 처형을 할 수 있지만 과거 아버지 시대나 할아버지 시대처럼 지속적으로 숙청하기는 어려울 때가 올 것이다. 이는 새로운 세대는 북한정권의 강력한 통제에도 경제적 이익과 함께 생존권을 침해당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2009년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이 시행한 ‘화폐개혁’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본 북한 주민들이 전국에서 김일성 초상화가 새겨진 구권 화폐를 불태우거나 쓰레기장에 버리는 일이 있었다.¹⁵ 이와 같은 돌발행동은 뜻

9 “북한 교사가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당 건설”...자생적 반체제 활동 징후”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22436>> 2024.6.2.

10 “북노동자들 중 임금체불에” 연합뉴스, 2024.1.19.

11 “북노동자들, 아프리카서도 폭동”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6035851073>> 연합뉴스, 2024.3.26.

12 “북노동자들,아프리카서도 폭동,중 폭등주동자 200명은구속”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6035851073>> 2024.3.26.

13 “북한 내 ‘반체제 정당 조직 적발’ ? ” <<https://www.voakorea.com/a/7468746.html>> 2024.6.1.

14 “빠라에 딜레마 빠진 북” 다음 시사저널 2024.5.30.

15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 집단행동 사건 분석” 샌드연구소 정세분석. <<https://www.sand.or.kr/kr/situation/calumn.php?bgu=view&idx=23185>> 2024.6.2.

하지 않게 북한을 흔들게 될 것이다.

F. 바보야 경제가 답이야.

‘바보야 경제가 답이야’라는 말이 있다. 어느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 이제 북한주민과 체제를 유지하는 세력들 중에 누군가 이 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

팬데믹 이후 북한은 여전히 국경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관광은 재개했다. 문화일보는 올해 러시아 극동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북한을 여행한 러시아인이 160명을 넘어섰다고 타스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5월 방문하는 4박 5일 일정의 북한 관광 상품의 경우 약 750달러(103만 원)로 알려졌다.¹⁶ 북한 관광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몽골, 스웨덴도 준비한다고 하니 얼마 가지 않아서 북한과 관계되어있는 국가들은 신청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야심차게 준비했던 원산부터 태백산, 천지연까지 모든 것을 활용할 것이다.

북한 정권은 나름대로 경제를 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한국의 것을 많이 모방한다고 한다. 남한의 아이돌의 노래를 편곡하고 또 한국의 라면, 과자 등 식음료품을 베끼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불닭볶음면’을 북한의 대표 식품기업 경흥이 모방해 ‘매운 닭고기맛 볶음국수’ 제품을 출시했다. 언뜻 보면 두 제품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포장 콘셉트가 비슷하다고 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회사에서 만든 ‘소고기맛 즉석국수’ 3종이 있는

데, 두 회사 모두 국내 라면들을 흉내 냈다. 두만강이 만든 제품은 ‘신라면’을, 황금나락과 경흥이 만든 제품은 ‘쇠고기면’을 따라했다.¹⁷

외부 세계가 주시하는 급진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북한 당국은 체제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개선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일부 대학에 경영학을 도입하고 청년과 여성을 위한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또한 북한의 주요 생산 현장에서는 품질 개선 교육과 원격 학습(e-러닝)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소비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과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브랜드 지적 재산권, 제품 포장 및 디자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¹⁸ 이런 노력은 북한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다.

그래서 경제를 원활히 돌리기 위해 북한정권은 개방을 만지작거릴 것이다. 개방 없이 북한 자원만 가지고 성장시킬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III. 한국교회의 북한선교 새로운 방향

이러한 북한의 변화에 한국교회도 북한선교 방향을 약간 틀어야 할 것 같다. 한국교회 북한선교의 대상은 북한주민이다. 북한주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케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북한선교는 북한주민들이

16 4박5일에 103만원 ‘北관광상품’...러 “북한 여행 러시아인 160명 넘어”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42601039910226005>> 2024.6.2.

17 “북한에도 ‘불닭볶음면’이 있다?... 한국산·미제 모방 급급한 무법 짝퉁지대 [문지방]”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71813330000619>> 2023.7.23.

18 전병길, “북한에 부는 마케팅 바람 - 연재를 시작하며” <<https://www.sand.or.kr/kr/situation/calumn.php?bgu=view&idx=23251>> 2024.6.2.



<올 3월, 4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 관광객들이 북한을 찾았다. 사진은 3월 당시 북한을 방문한 첫 해외 관광객인 러시아 여행객들의 단체사진 (주북 러시아 대사관 페이스북)>

예수님을 영접하여 지금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북한선교의 대상인 북한주민을 네 형태로 분류한다. 첫 번째는 북한내지주민들이고, 둘째는 북한에서 살지 못하고 나온 탈북자들이며, 셋째는 그 중 한국에 들어와 정착한 탈북민들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난민인정을 받고 해외에서 사는 탈북난민들이다.

1990년대 초부터 한국교회는 북한을 나온 탈북자들과 한국으로 들어 온 탈북민들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도우고 선교해 왔다. 이는 시대적 환경에서 나온 선교적 상황인 만큼 당연한 한국교회의 북한선교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북한선교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따라 한국교회의 북한선교의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더욱이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에 따

른 선교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2천 5백만의 북한 내지 주민들을 향해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A. 북한 내지주민들에게 집중

남한교회는 월남인들 중심으로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 준비해왔지만 뜻하지 않은 북한의 고난의 행군으로 그들을 돕기에 나선다. 이때부터 한국교회의 북한선교는 북한에서 살 수 없어서 국경을 넘어온 탈북자들과 남한에 정착하러 온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사역하기 시작했다. 지난 30년간 이들에게 집중했는데, 근자에 들어와 북한에서 나오는 탈북자들이 없어지고, 심지어 남한으로 들어오는 탈북민마저 소수여서 탈북자, 탈북민 중심의 북한선교는 위축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한국교회가 새로이 집중해야 할 것은 변

하지 않은 것 같으나 서서히 변해가는 북한 내지이다.

그동안 북한 내지를 향해 간간히 해 왔던 사역의 주체는 주로 해외 한인교회와 유럽의 현지 교회와 단체들이었다. 이들이 해왔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하나는 BAM(Business As Mission, 비즈니스 선교), 둘째는 NGO, 셋째는 비법적인 것으로 전통적 선교였다. 이런 사역들이 팬데믹으로 인해 끊어졌다가 다시 재개되려 하는 데 현재 북한은 어떠한 형태이든 한국인이라면 받아주지 않는다.

이러한 때, 한국교회는 북한이 받아 주는 해외 교회 성도들과 협력하여(유럽, 남미, 북미, 아시아 등의 여러 나라에서 지금 북한내지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북한 내지 선교를 준비하고, 심지어 북한내지선교사를 동원, 훈련, 파송해야 할 것이다.

B. 북한 관광을 비전 트립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은 북한 내지를 가보고 싶어도 갈 수 없다. 북한선교사로 파송 받았지만 북한 내지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 외국 시민권을 취해 해외동포로 북한을 들어가려 했으나 지금은 이것마저 북한이 허락지 않는다. 이러한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처럼 한국교회는 해외교회 성도들에게 북한 여행을 권유하는 것으로 가자.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행은 비전 트립이고, 기도하며 가는 땅 밟기가 된다. 현재 ㅂ국가의 청년들과, ㄹ국가, ㅅ국가, ㅈ국가의 성도들이 북한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 여행은 제한적이다. 감시자가 붙어 다닌다. 그래도 한 번 가본 뒤, 이어 여러 번 다녀오면

어떻게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도울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많은 한국교회 교단들이 여러 해외 교단과 자매 결연을 맺은 줄 안다. 공문을 보내어 그들에게 북한여행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북한여행을 권유하였으면 한다.

C. 장마당을 선교전초기지로

장마당은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최전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이들은 이미 자본주의화 되었다고 해도 될 것이다. 그 일에 뒤에서 종사하는 수많은 북한주민들의 세계관은 이미 ‘공산당에서 장마당’으로 전환했다. 이런 변화의 최일선에 있는 장마당은 또한 정보의 유통의 장이다. 그 옛날 장돌뱅이들이 진사 집 사랑방에 모여 밤새우며 보고 들을 것을 이야기 나누었듯이 장마당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자유롭지 못한 감시세계임을 우리는 알지만 일대일의 대화까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1222년 유럽인들은 처음으로 몽골인과 직접 접촉하게 된다. 유럽의 루브룩이란 사람이 1254년 몽골 수도로 가게 된 후 마르코 폴로 역시 중국에서 지냈다.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몽골과 중국은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가 전해져 있었다.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는 동방으로 빠르게 전해졌다. 이란을 거쳐 아프가니스탄을 거쳐¹⁹ 몽골, 중국으로 전파했다.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문화를 전해주는 교사인 동시에 중개자의 역할도 하였다.²⁰ 이들의 선교 루트는 교역을 통하

여 했다.²¹ 네스토리우스파로 개종한 소그드인들은 동서교역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국제상이었다. 이들은 서쪽 비잔틴 제국에서 동쪽 중국, 북쪽 몽골리아 초원에 이르기까지 하였다.²² 초기 동방의 기독교가 이런 기독교인 상인들이 동서교역의 길을 따라 복음을 전한 것처럼, 북한의 장마당을 복음의 루트가 되고 전초기지로 만들 전략이 필요하다.

IV. 결론

북한의 변화는 미미하다. 그러나 그 미미한 변화가 북한에 틈이 생길 것이고 그 틈을 통해 우리는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하지만 한 가지 한국교회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열린 후에 선교하는 것은 늦다는 사실이다. 지금이다. 남북관계가 가장 어려운 지금이 바로 선교를 준비하기 좋은 때이고, 또한 작게나마 세계교회와 함께 협력하여 선교할 수 있는 때이다. 한반도의 상황 때문에 지금 북한선교를 멈추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21 김호동. 117.

22 김호동. 118.

19 김호동. 『동방기독교와 동서문명』 (서울: 까치글방, 2002) 101.

20 김호동. 111.

북한의 한류 현상과 주민 의식 변화

강 동 완 (동아대 교수/유튜브 강동완TV 운영)

지난 1월 중국 지린성 허룽시에서 일어난 북한 노동자들의 폭동 소식에 이어 단둥시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북한 노동자의 소요는 임금 체불이나 귀국 연기가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러시아 현지에서 만났던 해외 파견 북한노동자 역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북한당국의 열악한 조치를 보며 지배인에게 조직적으로 항의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해외 파견 북한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당이 우리를 위해서 해 준게 무엇인가?”라는 말까지 나누었다고 한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속의 북한을 생각하면 어떻게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정치적 비판이 섞인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교화형에 처해 지거나 목숨까지 부지하기 어렵다는 북한의 통제체제를 고려하면 북한노동자들의 폭동은 그야말로 충격이다. 대체 북한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또 이러한 시위가 가능했던 의식 변화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무엇보다 최근 북한 내에서 외부정보 확산에

따른 사회변화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당국이 2020년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는 외부사조의 유포를 막기 위해 상당히 구체적인 단속 대상과 방식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에 따르면 북한은 이 법의 제정 취지와 관련해 '반동사상문화를 배격하는 것은 우리 제도를 붕괴시키려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 사상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설명한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발표하기 전에도 이와 비슷한 법이 이미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북한 형법 194조는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내용물을 시청하거나 유포할 경우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남조선 영화를 명확히 언급하며, 처벌의 강도를 사형까지 높였다.

이미 관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영화를 단속하고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었다는 점은 그만큼 한류의 확산 속도와 범위가 당국의 통제를 벗어났음을 말해준다. 무엇보다 최



〈북한에서 2022년 평양시에서 주민학습용으로 배포한 '학습제강' 영상의 한 장면. 두 소년에게 한국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는 죄목으로 수감되어 있다. 이 학생들은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BC코리아=샌드연구소)〉

근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두 개의 조선을 언급한 것은, 북한 내부에 확산하는 남한 문화를 차단하기 위한 절박한 조치로 해석된다. 주민들이 남한 영상물을 본다고 사형까지 하면서 정작 남한에 대해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세계를 보는 또 다른 창이다. 북한 주민들은 남한 영화나 드라마, 대중가요를 통해 남한을 새롭게 인식한다. 남한 영상물을 접하면서 자본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복음에 대한 인식을 경험하는 것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동안 북한 당국으로부터 철저하게 주입된 정보를 통해 외부세계를 인식했던 북한 주민들로서는 한류가 외부세계를 경험하는 출구가 된다. 북한에서는 외래문화를 접한 사람들을 '자본주의 날라리'라 부른다. 단순히 한류로 대변되는 남한 대중문화의 확산수

준을 넘어 그동안 폐쇄되었던 북한 사회에 어떠한 파급효과로 작용할지 주목해야 한다.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류를 접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바꾸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은 당국으로부터 사상 교양과 학습을 통해 남한과 남한사람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늘 강요받는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남한은 '미 제국주의 식민지', '혈벗고 굶주린 사회', '썩고 병든 자본주의' 등으로 선전해왔다. 그런데 그들이 직접 한류를 통해 본 남한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 북한 주민들이 남한 영화,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의식변화를 겪는 과정은 그동안 북한에서 교육받던 남한의 모습과 다른 현실을 목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썩고 병든 자본주의 한국에 거지가 많다는 북한 당국의 교육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를음을 알게 된다. 여성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도 신기한데 한 손으로 휴대전화까지 하는 사용하는 장면은 너무나 부럽고 신기했다. 드라마 내용에 몰입하면서 등장인물의 상황이나 정서에 공감하면서 한국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내용에 동화되기도 한다. 북한에서 영화나 드라마는 사회주의 혁명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써만 기능한다. 그런데 남한 영상물은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생활 속 소재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특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남한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경제적 모습을 보면서 잘살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장면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청소감은 자기 생각을 바꾸는 계기로 이어진다. 일한 만큼 가져갈 수 있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자신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내 것이 될 수는 없었다. 자본주의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형이라 교육받았지만, 오히려 풍요로움은 너그러움이 되었다. 거리에 넘쳐나는 자동차와 즐비한 사람들, 고층건물은 기존의 교육받은 남한의 모습이 아니었다. 단순한 부러움으로 끝나지 않고 왜 우리는 이렇게 못사느냐는 생각으로 확산하였다. 국가와 정권에 귀속된 부속물로서의 인간이 아닌, 사적 욕망

과 감정을 가진 하나의 주체로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는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미약하나마 이를 공유하게 된다.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의 확산은 단순히 한류의 전파라는 점 외에 폐쇄된 북한체제에 자본주의 요소로서 시장을 확대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북한에서 시장은 단순히 물물거래의 기능보다는 정보가 유통되고 북한사회의 폐쇄성을 허문다. 북한에서 한류 확산의 근저에는 시장이라는 새로운 생존방식이 결합하여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시장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적관계망이 형성되는데 이는 단순히 상품의 거래뿐만 아니라 정보공유를 통해 정치적 의식의 자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한류 확산 및 의식변화와 관련하여 '장마당 세대'를 주목해야 한다.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북한 당국이 대내외에 내세웠던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배급이라는 복지 구호가 무색할 만큼 북한의 복지체계는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바로 이 시기를 전후로 출생해 사회주의체제의 복지혜택을 실감하지 못한 세대를 일컫는 말이 장마당 세대다.

새세대들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며 체계적인 사상학습 교육을 받지 못해 국가나 지도자에 대한 충성도가 약한 세대라 할 수 있다. 이전 세대가 정권을 위해 '자폭용사'가 되겠다는 신념의 세대였다면, 새세대는 국가가 자신들을 속이고 폐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인지하는 세대다.

더불어 윗세대와 자신들을 구분 지으려는 청년 세대의 특성은 남한 영상물에 동화되는 효과가

더욱 높다. 즉, 기성세대와 자신들을 구별하려는 성향, 그리고 생애주기 특성상 또래집단을 중심으로 동류의식을 지향하려는 특성은 남한 영상물을 함께 모여서 시청하거나 내용을 공유하며 모방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남한 영상물에 대한 통제가 가해진다고 해도 대담하게 반복 시청을 하는 특성이 있다. 남한 말투를 따라 하거나 머리 모양을 바꾸고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이 또래에서 우월감을 나타낼 수 있는 행동이 되었다. 남한 영상물을 시청한 청소년들은 의식이 '갬다'라고 표현한다. 청소년들의 모방하려는 특성상 어느 세대보다 남한 영상물로 인한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 한류는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고 새로운 문화를 만든다. 북한 주민들에게 한류는 외부세계와 연결하는 유일한 접촉점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류를 통일 선교 과정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우리의 공세적인 정책이 절실히 요청되며,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해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외부정보 유입을 확대해야 한다.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낼 것인가를 모색하며, 북한 내 타겟을 세대별, 지역별, 계층별로 구분한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감옥문은 절대 안에서는 열 수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북한주민들이 외부정보를 통해 의식변화를 경험하고, 이를 체제 변화로 연결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밖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북한변화, 북음통일의 길은 바로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다.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와 주민의식 변화

-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중심으로 -

정은 찬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통일교육연구센터장)

1.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개관

2024년 2월 6일 통일부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을 공개하였다.

본 보고서는 통일부가 2010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탈북민 6,351명을 대상으로 1,100여 개의 문항을 일대일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한 결과를 담고 있다. 그동안 3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들께 북한 실상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분 비밀해제하여

공개한 것이다.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에 체계적인 자료나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본 보고서는 20여 년의 북한 실상을 5년 단위로 나누고, 특히 김정은 집권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시계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통일은 북한 실상을 제대로 알고 알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실제 생활 실상인 경제·사회 실태와 주민의식 변화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통일 실현을 위해 더 더욱 그러하다.

2. 북한의 경제 실태와 변화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은 경제 전반이 침체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당국이 가용한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소진하여, 민생 고통이 가중되었다는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은 1970년대 이후 북한의 핵개발 투입 비용이 약 11~16억 달러이며, 이는 북한 주민 약 2,500만

명이 4년간 부족한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비용, 코로나19 백신을 2~3회 접종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분석하였다.

체제 유지를 위한 왜곡된 정책수립과 불균등한 예산배분은 김정은 집권 이후 더욱 심화되어, 네 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로 이어졌다. 북한은 매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방부문에 지출하는 예산 비중이 15.9%라고 공표한다. 그러나 미중앙정보국(CIA)은 2021년 ‘국가별 현황보고서(Factbook):북한’에서 북한이 아시아 최빈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방 부문에 국내총생산의 약 26~30% 이상을 투입한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의 핵개발 가속화는 산업부문 발전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2017년 이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산업부문의 침체는 기업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업 기업의 1일 실제 가동시간이 ‘6시간 이하’가 37.6%, 1일 전력 공급시간이 ‘6시간 이하’가 38.6%로 조사되어 하루 6시간도 가동하지 못하는 기업이 1/3수준이었다. 산업연구원이

추계한 국영기업 3,565개(2023.12.기준)에 대입하면, 약 1,100여 개에 해당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2014년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2014~2015년 기업소법 개정 등으로 기업의 자율적 운영 확대 및 개인유휴자금의 기업 투자가 허용되었음에도 그러한 정책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영기업의 비정상적 가동은 생산현장 근로자의 급여 미지급으로 이어져 식량 배급과 월 급여, 노임을 동시에 받지 못한 비율이 50.3%로 나타났다. 식량배급을 전혀 받지 못한 비율도 72.2%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농민의 경우 농장생산물 중 당국이 50.4%를, 군부대가 21.2%를 먼저 수매해간 이후 나머지 12.9%로 1년 분배를 받게 되어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여기에 간부들의 수탈도 민생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어, 월 급여의 30% 이상을 수탈당했다는 비율이 41.4%를 기록하였다. 국영경제의 위기는 고스란히 주민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통해 본

〈그림 1〉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본 책자와 리플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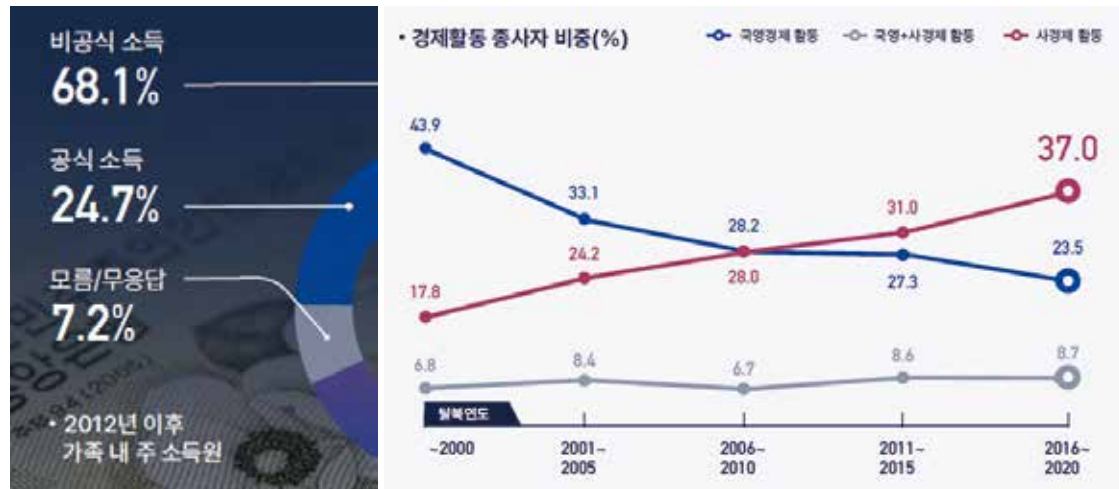


〈그림 2〉 북한의 식량 배급 및 월급여 지급 실태



자료: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리플렛, 2024. pp.4~5.

〈그림 3〉사경제활동을 통한 비공식소득 취득 실태



자료: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리플렛, 2024. p.18.

경제 실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로서의 기능이 원만하지 않음을 가늠하게 한다. 결국 북한 주민들은 사경제활동을 통해 자립적으로 생존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북한 계획경제에서 사경제의 확대가 가능한 이유는 계획경제와 시장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시장은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 이후 아래로부터 형성된 자생적 암시장(Black Market)이 2003년 상설시장으로 공식화된 것에서 기원한다. 현재 상설시장은 생산물시장으로, 생산재시장인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과 소비재시장인 지역별 종합시장을 포함한다. 다만 북한은 생산요소시장인 자본시장, 노동시장, 부동산시장은 공식 개장하지 않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계획경제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근로소득 비중은 감소하고 장사·소토지경작·밀수 등의 사경제활동이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 공식소득보다 비공식소득이 68.1%로 높아졌다고 조사되었다. 비공식소득 비중이 높다는 것은 개인 수중에 부가 집중된다는 의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부를 축적한 신흥부유층, 일명

‘돈주’, 그리고 권력을 남용하여 부를 축적한 간부계층과 일반 주민과의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는 비율이 93.1%로 조사되었다. 특히, 평양과 지방은 식량공급에서 약 2배의 격차를 보였다. 빈부격차는 부유층의 자산 증식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거상들은 권력층과 유착하여 건설기업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 몇 채를 분양받는다. 이후 주택 암거래 중개인인 ‘주택데고’에게 맡겨 매매하는 방식으로 부를 늘리고 있다. 한편, 일반 주민들은 주택 미공급 상황에서 개인 간 ‘살림집리용허가증’, 즉 ‘입사증’ 양도 및 암거래 매매를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과정에 소규모 국유자산의 사실상 사유화가 확산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주택 양도 및 매매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6.2%로 나타났다. 이는 공식적으로 주택이 북한 당국의 소유이지만, 개인들은 법적 통제를 피해 암거래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질 때 북한 주민들이 선호하는 화폐는 외환, 김정은 집권이후 중국 위안화 통용이 5배로 증가하였다. 북한 주민들은 ‘국

돈’보다 달러와 위안화를 경제활동에서 주요한 거래 매개이자 가치저장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2009년 화폐개혁 실패 이후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결과이며 동시에 북한 주민들이 당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탈북민 6,351명은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좋은가라는 질문에 49.5%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고, 75.3%가 시장을 더욱 선호한다고 답하였다. 결국 북한 당국이 체제 우월성으로 강조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보다 시장경제가 더욱 좋다는 결과가 현실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북한 경제 실태는 사회 분야에서 어떤 변화를 견인하고 있을까?

3. 북한의 사회 실태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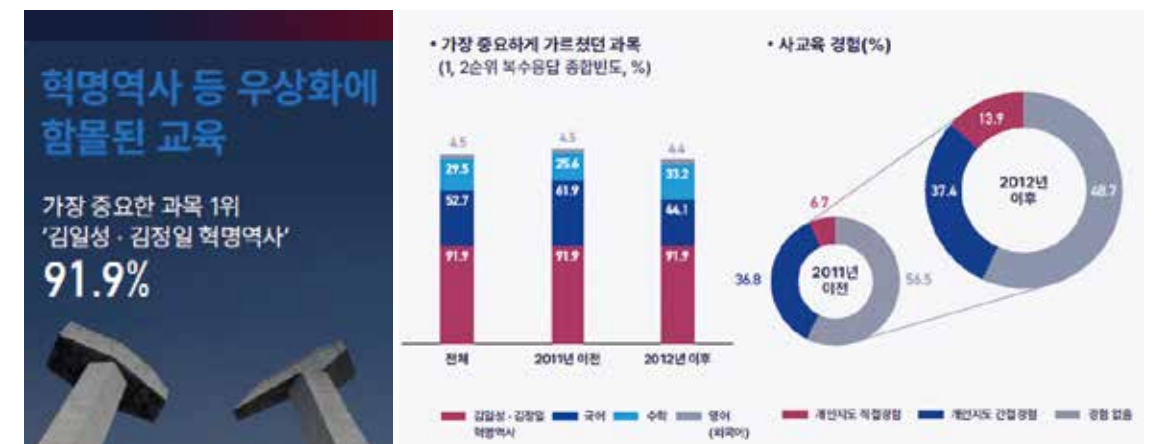
북한은 사회정책의 기본으로 집단주의, 수령제 일주의,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체제 결속을 위해 주민들을 출신성분을 기준으로 3계층 56개로 분류하여 대상별 사회통제를 강

행하고 있다. 사회결속을 위해 북한 당국이 선대 시기부터 가장 큰 과업 중 하나로 내세운 것은 의식주, ‘식의주’ 문제의 해결이다. 2019년 3월 김정은 위원장은 제2차 전국 당초급선전일꾼대회 서한에서 “전체 인민이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려는 것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평생 염원”이라며 농업 증산을 독려하였다.

3대 권력이 세습되는 기간 대를 이어 해결하지 못한 ‘식의주’ 문제, 과연 본 보고서에서는 어떤 실상들이 드러났을까?

북한 주민의 1년간 식량 수요량은 약 590만 톤이다. 한국농촌진흥청이 추계한 2023년 기준 식량 생산량 482만 톤을 수요량과 비교하면 100만 톤 이상이 부족하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탈북민 6,351명이 알려진 북한의 실상』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북한 당국의 중차대한 과업이 식량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 주민의 70.5% 이상은 배급을 받지 못해 시장을 통해 식량을 조달하였으며, 이러한 만성적인 식량 부

〈그림 4〉북한의 위상화 교육 실태



자료: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리플렛, 2024. p.10.

족 상황은 김정은 집권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식량 뿐 아니라 생필품도 ‘내돈내산’으로 시장에서 해결하고 있고 가정용 전력과 식수 문제도 자력갱생 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무엇보다 전력 공급이 문제이다. 북한의 전력 사정은 1990년대 중반 산업부문 80% 이상을 침체시킨 주된 요인이기도 하였다. 1970~1990년대까지 수력과 화력을 병행하는 전력 조달구조에서 2000년대 이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방식을 추가하였으나, 산업용, 공공용 전력, 난방 및 취사 등 가정용 전력 공급은 부족 상태에 있다.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 상황으로 북한의 가정에는 하루에 4시간 밖에 전력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으며, 축전지나 태양전지 등을 활용하여 자체로 전력을 해결하는 비율이 53.9%에 달한다. 또한 식수 공급에서도 상수도 사용 비율이 54.2%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북한 주민 생존의 필수 3요소인 ‘ㄹ’ 받침이 들어가는 쌀, 물, 불 조달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위해 보장해 주어야 할 삶의 사회적 환경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도 당국 차원의 공공성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1952년 11월 13일 내각 결정 ‘무상치료제를 실시한데 대하여’에 따라 전민 무상치료제를 실시하였다. 1980년 ‘인민보건법’ 채택 이후에는 ‘의사구역담당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본 조사에서는 병원 진료 경험이 ‘없음’ 응답이 39.6%, 의사구역담당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70.6%로 나타나 사실상 무상치료제도가 유명무실함을 보여주었다. 병원에 가도 약을 공급하지 않아 종합시장에서 약을 구입했다는 응답이 44.9%로 나타났다. 2023

년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민은 코로나에 감염되었지만 감기약을 먹고 체온계가 더 올라가지 못할 정도의 고열을 견뎠다고 하였다. 이러한 속에서도 병원에서 사회계층에 따른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 당국이 출신성분을 기준으로 분류한 3계층, 즉 기본군중, 복잡한 군중, 적대계급 잔여분자 등에 따라 진료 및 약 처방을 차별화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 우월성으로 무상치료제도와 함께 무료교육제도를 자랑해왔다. 그러면 무료교육제도의 실태는 어떨까?

북한은 1975년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한 이후, 김정은 시기 들어 2012년 9월 전반적 12년제 무료의무교육제도 시행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일명 지식경제시대에 맞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추진이 목적이라고 강조하였는데, 교육과정을 보면 학생들의 선택에 의한 학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본 조사에서 탈북민들은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1순위가 김일성·김정일 혁명역사라고 91.9%가 답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지도자에 대한 신격·신조화 교육이 우선으로 더욱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교육을 경험한 비율도 51.3%로 조사되어 예체능을 비롯한 대학 입학에 유리한 과목의 사교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12년제 무료의무교육이 실효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북한은 학교에서의 정치사상교육 강화를 통해 신세대의 결속 및 사상이반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정보통신(ICT)기기 보유 및 활용 현황을 보면 당국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

〈그림 5〉 북한 주민의 휴대폰 보유 비율과 외부영상물 시청 실태



자료: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리플렛, 2024. pp.22-23.

로 변화가 촉진되고 있다. 본 보고서의 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민 중 휴대폰(‘손전화기’)을 보유한 비율이 36.4%, CD/DVD플레이어 보유가 73.6%로 나타났다. 외부문물을 볼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되는 추세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의 외부영상물 시청 여부는 83.3%, 이중 남한 영상물이 23%로 2순위이다. 북한 당국은 남한 문물 선호 열망, 외부세계 동경을 차단하기 위해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9월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1월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통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5~15년형 징계와 공개처형을 포함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남한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의 패션과 용어 등을 모방하고 남한 동격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차단하기 위해 통제와 규율 통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은 집권 이후에 사회적인 감시 및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비율은 71.5%,

특히 거주지에서의 감시가 강화되었다는 비율은 51.3%로 나타났다.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북한 정권의 사회통제 강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존의 길을 찾고, 그 과정에 변화를 추구하는 북한 주민들, 과연 그들의 가치관과 의식구조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까?

4. 북한 주민의식 변화 실태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계획경제보다 시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78%로 높게 나타나, 체제 신뢰 공급 의존 의식보다 자립적 생존 의식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북한 주민들은 ‘시장이 없으면 생활이 안된다’고 90% 이상이 응답하여 시장에 절대적인 의존을 보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김정은 집권 이후 더욱 증가하였다. 자립적으로 생존해야 하는 북한 주민들은 개인·가족·돈 중심의 가치관을 중시하며 당국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가 사회문화 분야 의식변화로 이어지는데, 집단주의 가치관을 넘어 개인의 일을 하는 것이 당과

〈그림 6〉 북한 주민의 체제 부정 인식 및 집단주의 기피 실태



자료: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리플렛, 2024. pp.20-21.

체제의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53.2%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북한 당국이 정치사상교육과 사회통제를 강행해도 북한 주민의식 변화는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주민의 경제적 자립의식 변화, 사회적 가치관 변화 및 문화적 변화는 정치 분야의 의식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3대 세습, 백두혈통이 세습되는 데에 대해 54.9%, 김정은 리더십에 대해 59.6%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북한 주민의 변화는 더디지만 지속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북한 당국의 사상이념적 통제와 정치조직적 통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통제, 법적 징계를 통한 통제가 강화되어도 북한 주민들은 성숙된 의식화를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도 다 함께 자유롭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음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민생의 고통을 방관하지 말고,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 보장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

수기

탈북민 수기 : 손이슬 자매

제 4화



한국행을 결행하는 일의 마지막 고민은 아이 문제였다. 아이를 두고 갈 것인가 데리고 갈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었음에도 지체하고 있었다. 아이를 두고 간다면 집에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결국 아이는 어미된 내가 책임지고 데려가야 할 일이었다. 그러다보니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크는 것을 볼 때 기쁨보다는 염려가 앞섰다. 듣기로는 중국 남쪽 국경에서 산도 넘고 강도 건넌다고 하는데... 또래보다 작은 체구이긴 하지만 5살 난 아이를 데리고 산을 넘고 도망치고 할 생각을 하니 두려웠다. 그렇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드디어 떠날 날짜가 정해졌다. 브로커는 떠나기 전 나에게 계약서를 내밀었다. 한국에 도착하

면 일정 금액의 돈을 주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그리고 어디로 오면 된다는 지침을 들었다. 나는 택시를 예약해 기사에게 내일 새벽에 와서 연락을 하라고 했다. 개가 짖으면 안 되니 집 바로 앞까지 오지 말고 도로에서 기다리라고 당부했다. 출발하기 전 짐을 싸는데 내 옷은 하나 없이 온통 딸아이의 옷만 가득 채웠다. 당일 새벽, 딸아이를 데리고 가방을 매고 사람들이 깽깽, 개가 짖을까 조심하며 집을 뛰쳐나왔다. 드디어 탈출이었다. 도착지에 안전하게 도착해 사람들과 합류하기까지 핸드폰을 꺼놓고 있었다. 하루 뒤에 핸드폰을 켜보니 아이아빠에게 정말 많은 전화가 와 있었다. 전화를 받아보니 아무도 내가 떠나는 것을 몰랐다고 했다. 떠난다고 해 놓고 계속해서 날씨가 지체가 되니 다들 긴장을 놓고 있어 내가 떠나는 기척을 못 느꼈던 것 같다.

그렇게 험난할 것 같았던 한국행의 여정이 시작 되었다. 다행히 그 여정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힘들지는 않았다. 중국 남쪽 국경을 넘어 배를 타고 태국으로 넘어가기까지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야 했는데 우리 일행은 그 대부분의 여정에서 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 산을 넘을 때에도 비록 길이 좋지 못하고 경사가 가팔라 차가 쿵쿵되고 힘들긴 했지만, 힘들게 발로 산을 넘는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되었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우리 전에 국경을 넘었던 팀은 엄청 고생을 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행 중 아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편하게 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렇게 걱정했던 아이 덕에 오히려 우리는 편하게 국경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정에 어려움이 될까 걱정했던 딸아이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한국에 와서도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했다. 사람들은 어린 아이를 보고 연민을 느끼고 나에게도 호의를 쉽게 베풀어 주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이제 남조선으로 가기는 글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아이가 태어난 후에 “십자가를 찾아가라”는 아버지의 당부를 기억하게 하셨고, 한국으로 오는 길도,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길도 순탄하게 하셨다.

중국의 남쪽 국경을 넘고 이제 태국으로 넘어가기 위해 배를 타는데 저쪽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 할 것 없이 남녀노소 십여 명 정도가 우리들이 탄 배에 올라탔다. 또 다른 탈북민 일행이었다. 함께 태국에 도착하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했다. 경찰

을 만나서 난민신청을 하고 한국으로 가면 된다고 했다.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 경찰을 찾아서 모이기로 했다. 나는 흩어지면 다시 모일 수 있을까 싶어 멀리 가지 않고 처음 헤어진 곳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조금 지나자 한 언니가 경찰을 찾았다고 해서 가보니 우리 일행 말고도 다른 북한 사람들이 더 모여 있었다. 그렇게 모인 세 무리가 재판을 받고 국제 난민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는 우리 말고도 세계 각국에 넘어온 난민들이 모여 있었다.

우리가 가게 된 곳은 태국 국제 난민 수용소였다. 그곳에는 우리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난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웬지 큰 대형 감옥 같은 느낌의 수용소로 벽도 촘촘한 쇠창살이었고 지붕도 아주 높았다. 그중에는 북한여성들만 모여 있는 칸이 있었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화장실 앞까지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누워있었다. 1, 2년 전까지만 해도 인원이 너무 많아 화장실에도 사람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워낙 무더운 태국의 날씨이다 보니 사람들은 선풍기 바람을 쐬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다. 돈을 주고 자리를 사기도 했다. 수용소 측에서는 난민들의 자리배치를 주기적으로 순환시켜주긴 했지만, 처음 들어간 사람은 알뜰없이 화장실 앞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

밖에서 보기에는 탈출의 큰 고비를 잘 넘긴 상황이었지만 난민 수용소에 아이와 함께 앉아있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다. 난민이라는 생소한 이름으로 닭장 같은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게다가

가 그 속에서도 낯선 화장실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자니 왜인지 여태껏 눌러있던 서러움이 막 터져 나왔다. 이런 고생과 설움을 참기 위해 탈북을 했나 하는 마음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딸아이가 주변 환경에 불안함이 올라왔는지 잠을 잘 자지 못하고 꼭 내 위에 누워 있으려고만 했다. 아무리 같은 북한 사람이라고 해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에 그곳의 분위기는 그리 달갑지 않았다. 특히면 싸움이 일어났고 몸싸움이 나서 코피가 터지는 것은 다반사였다. 다들 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되는 고생 끝에 거기까지 다른 것이니 그럴 만도 했다. 중국에서 오래 있다가 나온 사람들은 거의 중국인과 같았고 북한에서 바로 나온 사람들은 고립된 상황에서 탈출한 것이니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한번은 그들이 하도 싸우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좋은데 가려고 그러는 것인데 왜들 그리 싸우는 것이냐며 면박을 줬다. 다행히 열기가 금방 사그라지긴 했지만 순간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 와중에 딸아이는 큰 활력소가 되어주었다. 그래도 여자들이라 그런지 다들 내 딸아이를 예뻐해 주었고 덕분에 딸아이는 금세 안정이 되었다. 누가 내 딸에게 뭐라 하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대신해서 싸워주기도 했다.

태국의 수용소 생활은 생각보다 여러모로 불편했다. 식사로 삼시세끼 기름이 두껍게 뜨는 닭탕이 제공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위가 상한다며 먹지 못했다. 우리도 영 비위에 맞지 않아 먹기가 어려웠지만 살기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꾸역꾸역 참고 먹었다. 심지어 정수기 물맛도 어찌나 이상하던지 물을 입에 머금기가 쉽지 않아 맛을 느끼



〈태국 이민국 수용소(RFA)〉

지 못하도록 차가운 물을 꿀꺽꿀꺽 목구멍으로 넘기곤 했다. 다행히 그러한 상황에서 딸아이는 배탈 한번 나지 않고 물갈이도 하지 않았다. 그곳에서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오고가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딸은 간식을 먹고 싶어 했다. 여비로 챙겨온 약간의 돈으로 파인애플을 간식으로 사서 조금씩 먹이곤 했지만 어느새 돈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지니 어찌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을 때 주변에 언니들이 딸아이를 위해 쓰라며 계속해서 돈을 보태주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이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셨다.

그 난민 수용소에서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사관 사람들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했다. 태어난 날부터 구체적으로 모든 과거의 행동들을 조사 받는 시간이 계속 되었다. 말이 맞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하며 힘겨운 조사를 이어갔다. 조사가 끝나게 되면 한국에 갈 수 있게 되는데 언제 나갈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한국으로 가는 조를 발표하는 날에는 모두가 초긴장 상태가 된다. 발표에서 언급된 사람은 환호성을 지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초상집이 된다. 사람들은 희비가 갈리는 이 발표시간을 기다리며 하

루하루 수용소에서의 생활을 이어나간다.

나 또한 긴장감과 불편한 수용소 생활 속에서 한국에 가고자 하는 갈급함이 커져갔다. 그러다 우연히 나보다 일주일 후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아는 분을 만나게 되었다. 그 아주머니는 엄마와 함께 교화소에 있던 사람이었다. 자신이 교화소에 있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기에 우리 어머니도 교화소에 있고 귀국자라고 하며 대화를 나누다보니 그 분이 어머니와 같은 교화소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분을 통해 엄마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뼈쩍 마르고 강한 허약이 와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했다.

나는 엄마가 죽을 지경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소식을 들은 후 내 머릿속에는 온통 엄마를 빨리 빼내야 한다는 집념뿐이었다. 엄마를 향한 걱정이 크다보니 속절없이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예배밖에 없었다. 그곳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성경책도 비치되어 있었다. 같이 수용소에 있던 10대 아이들 중에 중국에서 제대로 말씀의 훈련을 받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주도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불편한 환경 속에서의, 또 어머니의 안타까운 소식이 머릿속을 맴도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더욱 간절했고, 주님은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진 나를 더욱 깊이 만져주셨다.

그렇게 약 3주 정도를 수용소에서 보냈고, 아

이를 동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조금 빨리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었다. 인천국제 공항에 도착했을 때를 잊을 수가 없다. 감사한 마음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곳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지나왔는지... 기도인지도 모르고 내뿜었던 모든 호흡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것이다. 한국에 들어오면서 내 마음에는 두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 잘 다니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리고 교화소에서 위중한 상태에 처해 계신다는 어머니를 어떻게든 구출해서 한국에 데려와야 한다는 각오였다.

국정원에서의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으로 가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한국에 도착 한 후에 겪게 되는 절차를 다 듣고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이 땅을 밟았다. 그렇기에 순간순간이 당황의 연속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교육과정을 잘 마치고 집을 받아 나왔다. 그때까지도 나는 중국에 있는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한국에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했기도 했었고 중국에서라면 한국에서보다도 북한과의 연락이 원활할 것이라 생각했기에 남편이 어머니 구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엄마를 구출하는 것이 나의 최우선 목표였다. (계속) 🐟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 목: 은경이 일기
저 자: 김영수, 서유석,
최형욱
출판사: 도서출판 북한연구소
발행일: 2024년 1월 20일
가 격: 20,000원

북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은 평소 접하는 자료와 실제 현장의 괴리감이다.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여러 저서와 논문들이 출간되고 있지만, 또 탈북민들의 도움으로 북한 현지 사정들도 훨씬 잘 알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북한 연구에서는 현장과의 괴리가 큰 걸림돌이다. 이러한 괴리감은 단순히 자료의 수집이나 정보의 비대칭성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문헌을 통해 어떤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 막막함 또한 연구와 현장의 괴리감을 키운다. 성경을 볼 때에도 성경의 내용만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적으로 체험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북한 연구에 있어서도 까딱 잘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용만 달달 외우는 사람 마냥 북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지만 정작 이해하지 못하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접한 책 “은경이일기”는 의외의 의미로 다가왔다. 은경이일기는 북한 출신 여학생이 탈북 이후 자신의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회고하며 써 내려간 일기 형식의 책이다. 저자가 ‘은경이’가 아닌 이유는 은경이와 같은 또래의 남녀 학생 이야기도 담고 북한이 고향인 아저씨 아주머니 이야기도 담아서 엮은 책이

기 때문이다. 이 책은 약 15년 전의 북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대략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장마당이 활성화 되면서 경제가 안정화된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이 책은 여러모로 독특한 구성과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구성적으로는 일기이면서 사람들의 대화를 일종의 대본처럼 구성하였다. 일기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북한 사람들의 어투를 리얼하게 반영하였다. 사람들의 대화에는 ‘크크크’ 같은 의성어나 물결 표시 등 과감하게 생동감을 살리기 위한 표기가 사용되었고 현대식 삽화도 삽입되어 있다. 이 책은 주인공 화자의 1년을 담고 있는데 여고생인 만큼 학교 일정(개학, 방학 등)을 따라가며 주민들의 생활상을 잘 묘사되어 있다.

내용적으로는 그 동안 논문이나 학술서적을 통해 알았던 북한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예를 들어 논문에서는 ‘최근 북한 주민들의 생활총화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증언이 있다.’ 라는 식이라면, 이 책에서는 학생들이 생활총화하는 장면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하다. 학생들이 실제 생활총화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또 그때의 교실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등이 화자의 입을 빌어 구체적으로 묘사되니 책에서 읽었던 그 생활총화의 분위기가 단번에 이해가 된다. 학교생활, 교우관계, 가정생활 뿐 아니라 각종 조직활동이나 공개재판 같은 사회 통제 요소도 여고생의 시선으로 묘사하여 주민들의 인식이나 분위기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묘사와 내용들이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라고 한다면,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고 우리네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이들은 ‘북한’이라고 하면 자유가 없고 억압이 심하다고 알려져있다 보니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책을 읽으며 느껴지는 북한의 일상의 풍경은 필자의 어렸을 적 모습과 유사한 것도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되는 모습이었다. 이 책을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에는 북한의 특별한 모습을 알고싶다는 마음이 컸다면, 책을 덮을 때는 북한도 우리와 같은 성정과 비슷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점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 책은 사람을 긴장시키거나 문제의식을 고취하는 등의 목적성을 가능한 배제한 느낌이 든다. 고난의 행군의 대기근을 지나고 제법 살만해진 시기의 북한을 묘사하면서 우리가 북한 하면 흔히 떠올리는 굶주림이나 어려움 등 어두운 이야기는 그리 두드러지지 않으며, 마약 문제나 공개 재판 등 그 사회의 어두운 모습도 언급은 되지 않음으로써 글의 중심 내용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이 점은 이 책이 가진 의도와 성격을 잘 반영하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어려운 생활상이 강조될수록 북한 사람들 자체보다는 사회 구조 같은 문제의 원인에 초점이 맞춰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주인

공 화자를 여고생으로 설정한 것은 적절한 것 같다. 여고생의 1년 생활을 일기 형식으로 표현하다보니 정치적 이슈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두운 부분들도 부모님 등의 입을 통해 한 단계 거쳐서 듣게 되는 방식으로 내용을 순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책은 북한 사람들의 생활상과 그 안에 담긴 정서가 우리네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주인공 화자의 밝고 화목한 가정과 사이좋은 이웃들과 친구들을 통해 정겹고 따뜻한 느낌을 주고 있다. 어떤 문제제기나 배움의 목적이 아닌 정겨움과 공감에 묻어나오는 데 집중한 이 책은 정치, 군사 이슈를 중심으로 주로 노출되는 북한이라는 존재 뒤에 숨겨진 보통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오히려 강조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 책을 덮으며 다시금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다. 오랜 기간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오면서 한민족이라는 의식도 점점 약해지고 통일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늘어나는 것 같다. 남한에서는 통일 비용이나 벌어진 남북의 경제 격차 등이 오랜 논란거리이고 북한도 정권 차원에서 통일 논의가 중단된 만큼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책을 읽으며 그저 서로가 좋은 이웃이 되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아무쪼록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 날을 속히 맞이했으면, 그래서 함께 학교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정겨웁게 지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북러 정상회담서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 체결… ‘한쪽 침략 당하면 상호 지원’ 담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약 2시간에 걸친 일대일 회담을 가졌다. 이어 양국 지도자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국가마다 외교 관계의 우열을 가리는 단계는 조금씩 다른데, 러시아의 경우 밀착도에 따라 ‘선린 우호 관계, 상호 신뢰하는 협력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전략적 동맹’ 순으로 등급을 나누고 있다.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으로 맺어진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기존 조약인 ‘선린 우호

관계’에서 세 단계나 상승한 등급이다.

해당 협정에는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된 것으로 해석된다. 조·소 동맹조약은 소련이 1990년 한국과 수교를 맺고 1991년 해체된 뒤 1996년 이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폐기됐다. 북러는 2000년 ‘우호·선린·협조 조약’을 다시 체결했는데,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빠지면서 ‘유사시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으로 대체됐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에 맺은 조약에는 과거 조약에 공통으로 등장했던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 남한을 더는 통일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겠다며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김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 언론보도 종합>

러, ‘간첩혐의 체포’ 한국인 선교사 구금 3개월 연장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선교사 백모씨의 구금 기간이 3개월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15일 만료 예정이던 백씨의 구금 기간은 9월 15일까지로 3개월 연장됐다. 백씨의 구금이 연장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러시아는 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백씨가 소속된 단체 등은 간첩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은 백씨와 영사

면담을 하고 필요 물품을 제공하는 등 지원해왔으나 관련 언급은 삼가고 있다.

한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에반 게르시코 비치 기자는 지난해 3월 30일 취재를 위해 러시아 중부 예카테린부르크를 방문했다가 간첩 혐의로 FSB에 체포돼 구금됐다. 그는 1년 2개월이 지난 13일야야 기소돼 오는 2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참고: 중앙일보, 6월 18일)

북한 오물풍선 대량 살포… 피해 잇달아

북한이 남한을 향해 4차례에 걸쳐 1천 6백여개가 넘는 오물 풍선을 살포하였다.

최초 오물 풍선 살포는 5월 28~29일 진행되었다. 약 350여 개의 오물풍선이 남한으로 살포되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이 5월 26일 "휴지장과 오물짖들이 한국 국경 지역과 중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공언한 지 이틀 만이었다. 민간 단체가 보낸 대북전



<경상남도 거창군에 낙한 오물풍선>

단이 구실이었다. 북한은 1차 오물풍선 도발 이후에도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미사일 카드를 번갈아 꺼내 들며 소위 '하이브리드식 도발'을 이어갔다.

정부는 5월 31일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북한은 6월 1일 밤 오물풍선 720여 개를 2차로 살포했다. 오물 풍선은 서울·경기도·충청도·경상북도 등에 낙하했고 차량 파손 등 민간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언급하자 북한은 오물 풍선 부양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였다. 다만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풍선 살포를 재개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강 대 강 대치 속에서 북한은 지난 6월 6일 새벽 우리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이를

빌미로 8~9일 3차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정부도 6월 9일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제로 재개하며 대응에 나섰다. 다만 추가 방송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렸다고 다시 공을 북한으로 넘겼다. 북한은 이날 밤 김여정 명의의 담화를 통해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빠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

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위협과 함께 4차 오물풍선 부양으로 맞대응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6월 9~10일 4차 오물풍선 도발에도 추가 확성기 방송을 송출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풍선의 내용물이나 김여정 담화 등에서 북한의 미묘한 변화 기류가 감지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북한발 오물풍선에는 유독한 물질이나 위해요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이 향후 생화학 무기로 이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사태의 심각성이 떠올랐다. 유사시 미사일을 쏠 수 있지만 풍선을 무기로 이용한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며 오물 풍선에 생화학 물질을 넣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참고: 언론보도 종합>

북한군 군사분계선 침범 잇달아... DMZ에 구조물 설치 포착



출처: 코리아랩 PBC
〈BBC에서 공개한 국경 인근 장벽 구조물의 위성사진 (출처:BBC코리아)〉

북한군이 지난 6월 20일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복상했다. 합참에 따르면 20일 오전 11시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수 명이 MDL을 20m가량 침범했다. 이에 우리 군은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북한군은 바로 복상했다. 이들은 복상한 뒤에도 멀리 후퇴하지 않고 MDL 바로 위에서 작업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6월 9일과 18일에도 군사분계

선(MD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에 복상했다.

최근 북한군의 MDL 침범은 DMZ 내 작업이 활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은 올해 4월께부터 북한한계선(DMZ 북쪽 2km) 등 전선지역 여러 곳에 다수 병력을 투입해 경계능력 보강을 위한 불모지 조성, 지뢰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뢰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국 BBC방송은 21일 DMZ 지역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북한이 한국과 경계선 근처에 장벽으로 보이는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사진에서 DMZ 동쪽 끝 약 1km에 걸쳐 DMZ 근처에 최소 3개의 구간에서 장벽이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경계선을 따라 장벽이 추가로 건설됐을 가능성도 있다. 건설이 시작된 정확한 날짜는 분명하지 않지만 작년 11월 촬영된 사진에서는 이런 구조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BBC는 전했다. 〈참고: 언론 보도 종합〉

1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 초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파업과 폭동 소식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임금 체불로 인한 반발로 북한 노동자 약 2천여 명이 집단적으로 당국에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출신성분과 북한의 철저한 통제를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고된 노동과 폐쇄된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들의 봉급의 절반 이상을 국가에서 징수하고 그 남은 액수만 지급받고 있지만, 그마저도 받지 못하게 되자 그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노동력 착취를 통해 외화를 수급하는 북한 당국의 행태가 중단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 주민 의식 변화가 복음을 수용하는 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번 해외 북한노동자 사태는 북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당국에 책임을 물었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당과 수령, 국가에 충성하는 것만을 배우고 알았던 북한 주민들이 부당한 대우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당과 수령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의식의 변화가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이들을 향한 복음 전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믿었던 국가로부터 실망한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정상회담을 가지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해당 협정에는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자동 군사개입'으로 볼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양국간의 군사 협력이 더욱 가시화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러한 북러 밀착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부추길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져만 가는 한반도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롬의 평화가 진전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강제 복송된 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3년 10월 중국에서 복송된 탈북자들 중에 성경을 접하거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 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가차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이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매체는 또한 소규모 복송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복송된 신자들과 강제복송 중단을 위한 기도가 특별히 요청됩니다. 탈북자 강제 송환이 중단되고 붙잡혀 있는 탈북자들에게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 특별히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이들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5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가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억류된지 10년이 지나고 있지만, 이들의 구명을 위한 교계의 각급 단체의 성명서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한국교회가 함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씨가 언론을 통해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들 갇힌 선교사들을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며 갇혀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이 하루빨리 자유함을 얻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6 북한선교현장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에서 탈북민 사역을 하시다가 러시아 정보기관에 의해 간첩혐의로 체포되신 백 선교사님의 구금기간이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백 선교사는 2월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수감 중인데, 러시아 법원은 지난 3월 백 선교사님의 구금기간을 3개월 연장한 데 이어 추가로 3개월을 더 연장한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북러 관계 밀착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와 탈북자 사역의 위축 우려가 높아지던 중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해외 북한 선교 현장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절실함을 일깨워줍니다. 체포된 백 선교사님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안전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 생명의 강 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끝났지만 여전히 인적 왕래는 제한적인 가운데 라디오 방송 사역은 막힌 담을 넘어 북녘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들이 제작, 송출될 수 있도록 방송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상 악화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청취 장애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북녘의 주민과 성도들이 강화된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단속 열풍을 잘 피해서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4년 6월 30일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에서
선교를 위한 자료개발과 한국교회에 기도정보 제공을 위해
계간 “북한지역연구”를 2023년 여름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북한지역연구”의 온라인 버전은
홈페이지(www.opendoors.or.kr)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지역연구”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요청하기”메뉴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Mission
Bible
College

성경대학시리즈

성경이 말하게 하라!

셀프 스터디에서부터 국내 목회 현장,
해외 선교 현장까지

성경대학시리즈는 성도들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사명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년간 사역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성경교육프로그램입니다.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현지인 성도를 영적 리더로 길러내고자 하지만
훈련과 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현장,

각종 이단과 불건전한 신학의 홍수 속에서 성경으로
균형잡힌 건강한 성도들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목회현장,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지만
어려운 훈련 프로그램은 부담스럽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평신도를 위해

성경대학시리즈(Mission Bible College)의 특징

1. 성도들이 복음의 기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경을 깊이 있게 접하고 영적 리더로 도약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교사가 앞에서 직접 가르쳐주는 스타일로 구성되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고, 개인 묵상과 소그룹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과 묵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성경 자료가 부족한 선교지를 위해 성경 본문과 참고 자료들을 한데 모아서 정리하여, 한 권의 책만으로도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가능합니다.

미션 바이블 칼리지는 4개 과정, 40여개 과목으로 계속 개발, 발간될 예정입니다.



교제 구입 관련 자세한 문서는
한국요풍도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